

#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8, 로마서 7:1-8:4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1-8:4의 제8회입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1장과 마찬가지로 덜 유쾌한 장 중 하나이지만 최선을 다해 다루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과 로마서 8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담긴 사과의 흐름 측면에서도 요점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 용어가 로마서 8장에 더 많이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샤르크스와 육체인 소마 사이의 연관성을 피하려고 실제로 노력해 왔습니다. 불행히도 Paul은 그들 중 일부를 연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가 매우 전체론적이어서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대와 갈릴리에서도 가끔 그랬는데,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대개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영혼과 육체를 구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문헌을 보면 로버트 건드리(Robert Gundry)가 몸을 뜻하는 소마(Soma)라는 책에서 이를 지적했고, 최근에는 다른 학자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창녀와 동침하는 남자가 되어 그와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창세기 2장을 인용하는데, 그의 인용문을 포함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마(soma)와 샤르크스(sarx)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로마서 7장 5절, 정욕과 몸의 지체는 육신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13, 육체의 죽음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몸의 부활과 대조됩니다. 7장 23절과 25절에 육체의 지체는 육체의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몸을 지체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용도에는 1:24에 신체를 성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담의 옛 생활은 6장 6절에서 죄의 몸과 동일시된다. 죽을 몸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 6:12 7:24, 죽음의 몸과 관련된 도덕적 패배. 그리고 8:10부터 13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육체적 열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체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영지주의자와 달리 바울은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다는 유대인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구별된다고 믿는다면, 그분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창조되었고 둘 다 훌륭하지만, 그것들은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육체적 열정입니다.

1:24, 6:12, 13:14 그는 정욕을 경계하고 정욕을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되었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배고픔이 필요해서 먹지만 폭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식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므로 증은 계속됩니다. 인간에게도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도 오래 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기초하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열정은 결혼했거나 건강식을 먹는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음식보다 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육체라는 용어조차 바울을 포함하여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육체는 종종 단순히 외적인 존재를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예수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셨으니 2장 28절에서 그는 육체의 할례에 대해 말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장 1절,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9장 3절, 바울은 유대 민족을 육신으로는 그의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9장 5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따라 유대 민족의 후손이셨다. 이는 육체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마찬가지로 뜻이다. 11:14, 일부 번역에서는 다르게 읽을 수 있지만 그리스어로 sarx라고 표시된 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11:14 그는 자기 동료 유대 민족을 내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로마서 8:4-9에서 육신과 영이 대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전체론적이라고 말할 때 반대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 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는 이집트인들이 신이 아닌 인간이고, 그들의 말은 영이 아닌 육신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창세기 6장 3절은 유대인들이 매우 자주 파헤치는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일 뿐임이니라 사르크스 .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에서는 사르크스(sarx) , 히브리어를 생각하면 바 사르(basar) 이다 .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바사르(basar ) 또는 보통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사르크스(sarx)를 말할 때 바사르 나 육체를 말할 때는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의 피조물성과 필멸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약함과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약하고 유한하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을 때에도 분명히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신이 되심으로써 어떤 면에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동시에 우리 중 한 사람과도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썄, 우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곳씩.

그러므로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일은 동시에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음, 사해 두루마리에서는 살의 의미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 약점에는 죄에 대한 취약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후기의 많은 영지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취약하고 유혹에 취약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육체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상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카르네아데스 와 다른 몇 가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실제로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주 상상했던 것, 즉 많은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 전통의 철학자들은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혼은 깨끗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마 (몸은 무덤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줄곧 마음을 닦았다면,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폴의 목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확실히 자기 소멸이나 열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으며 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창조된 더 큰 목적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맥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그분의 몸을 섬기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더 큰 목적, 즉 무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대조는 약한 필멸의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것, 우리의 정욕에 맡겨진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내버려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의 우리의 대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인류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은 특별히 문맥에 따라 결정 되지만 , 항상 피조물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고, 취약성 개념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토라는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의 딸이었고, 적어도 때때로 유대 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습니다. 토라에 따라 결혼했지만 과부의 남편이 죽으면 죽음으로 결혼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과부가 남편에게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혼법과 과부에 관한 유대인의 법은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이전 연결에서 해제됩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묶여 있었고, 상대방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Mishneh Gittin 9, 사람이 이혼할 때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면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가끔 그의 글에서 이혼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는 과부 생활을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의 비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는 유대법에 따라 일부다처제가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예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일단 남편에게서 벗어나면 재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재혼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라에서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전의 결합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에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가 매춘부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성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누군가와 한 몸이 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연합에 대해 육체적인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7장 4절).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열매라는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 안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거기서 그는 몸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육신화되어 있었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내세에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었을 때 그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몸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습니다(고린도후서 5장). 그러나 그는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이 우리 몸에 역사하였나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정욕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정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규칙과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규칙과 규정은 더 자세할수록 그 규칙에 어긋나는 우리의 반대 경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성을 세세하게 관리하거나 생각을 세세하게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활동을 투자하시고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6장의 노예 생활에 대한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며,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는 6장과 22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움, 우리는 새로움으로 봉사합니다. 이는 6장과 4절의 새 생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편지 의 오래됨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6장과 6절에 있는 옛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anthropos), 아담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는 문자와 정신을 대조시킨다. 글쎄요, 랍비들은 토라 연구에 있어서 매우 꼼꼼해서 때로는 철자법의 사소한 문제에도 집중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7의 임펄스인 예 지르(yetzir) 는 여기에 두 배의 요드가 있다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두 개의 예지르, 선한 예지르와 악한 예지르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우리는 세부 사항에 매우 집중할 수 있고 텍스트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텍스트 중심입니다. 그러나 영의 삶은 그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바울이 옛 언약을 반대하는 것처럼, 옛 언약이 나쁜 것처럼 읽었습니다.

요점은 옛 언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새 언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장부터 8장, 특히 6장과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큼니다.

싱크리시스, 즉 비교의 수사적 연습 에서 바울은 수사적 연습에 대한 이런 종류의 꼬리표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물을 비교하고, 대상, 미덕 등을 비교하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 수사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좋은 것과 더 나은 것 사이에 있습니다.

옛 언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더 위대하고 새 언약은 이제 우리를 옛 언약 너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약의 본문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원칙은 있지만 이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한 옛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새 언약에는 율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은 예레미야서의 구절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혼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그의 백성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로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신 이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와 정신의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옛 방식이 아니라 에스겔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제는 영으로 육신의 마음판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과 6절에서 그는 옛 언약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토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도 가끔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이상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인가? 그는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는 6장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율법으로 인해 해방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백한 질문을 던지고 대담자는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선하지만 율법은 육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통제한다고 7장 12절과 14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죄를 제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영의 활동 없이 그 자체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3장 31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창세기 15장 6절부터 로마서 4장까지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 30장을 인용하여 말씀이 당신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 토라에 비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것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말씀은 만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8장 2절에서 그는 에스겔 36장을 떠올리며 율법이 어떻게 영에 의해 우리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다양한 구절에서 그는 우리가 율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품의 기준으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27절에는 율법을 자랑의 법칙,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접근한 것이 있습니다. 9장 31절과 32절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고대의 수사학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충격적인 가치를 지닌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유대인 교사들의

방법을 따라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매우 독특한 면이 몇 가지 있었지만, 충격적인 언어의 사용, 과장법의 사용, 노골적인 수사학적 과장 등은 랍비들 사이에서 상당히 흔했으며 아마도 예수께서 사용하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 값을 사용하면 Paul은 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 도발적인 진술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의 율법 신학 전체로 받아들인 다음 구약을 무시하거나 정경 안에 정경을 세우게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적으로는 캐논의 일부 부분을 주변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 그리드로 사용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내 말은, 구약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과 34장에서 율법을 주신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본성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핵심에 비추어 세부 사항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사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쉘마를 인용할 때, 오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일종의 토라의 요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다른 곳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하나로 묶는 요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 외에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의 핵심을 요약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원리를 요약한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마음처럼 사랑하는 법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경에 대한 귀납적

연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신학생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법적 세부 사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무보다는 숲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때때로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세부 사항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먼저 이해 하고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양이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I, it's 1인칭, 인칭대명사, saw, 안감의 과거형 동사, 정관사, cat, felix Domesticus, 달리다, 빠른 이동을 나타내는 과거형 동사,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이족보행 빠른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문장이 명확해졌나요? 우리는 세부 사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그림을 놓친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아래서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주장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은,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에서 15번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학자들과 함께 7장의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개요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으로 정욕을 일으켰으나 이제는 6절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는 영의 새로움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바울이 7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8장에서 성령의 새로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특히 14절부터 25절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의 현재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특히 7장 7절부터 13절까지보다 7장 14절부터 25절까지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수사학적 정교함은 때때로 무언가에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지만 Mark가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내러티브에서 역사적 현재라고 불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동사에 대한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양상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즉, 때때로 우리가 과거 시제로 간주하는 결정적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동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 현재 시제는 때때로 단순히 행동을 내부에서 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 아래서의 삶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통해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내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내 동료 중 자신은 OCD이고 나는 ADD라고 합니다. 나는 실제로 말 그대로 ADD입니다.

(강박장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한 CDO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세부 사항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OCD가 아니더라도 OCD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믿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묘사합니다. 그가 현재의 삶을 묘사하든 전생을 묘사하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이런 종류의 투쟁에 근접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삶이 아닌 율법 아래의 삶을 말하는 것인지가 논란의 여지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현재인가, 과거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글썄요, Paul의 경험은 아마도 그의 프레젠테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 자신의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율법 아래서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7:7-13에서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지만, 7:14-25에서는 현재 동사를 사용합니다. 주석가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바울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합니다.

많은 로마 교부들, 많은 라틴 교부들은 이것이 바울의 현생이라고 믿었지만, 그리스 교부들은 대개 이것이 바울의 전생이라거나 바울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소포포에이아(prosopopoeia)를 할 때, 즉 무언가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때 현재 시제, 연설, 성격의 사용에 따라 시제가 달라집니다. 또한 수사학, ekphrasis의 생생한 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생한 묘사를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나는 전통적으로 역사적 존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단순히 행동 내에서 보다 생생한 관점, 즉 내부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tanley Porter, Andrew Doss, Mark Seyfried가 현재 시제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과장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약간의 과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2 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과장된 희화화와 같습니다. 아, 하지만 난 해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절 등을 털거든요. 이것은 매우 생생한 사실이며, 이것은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아무것도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율법 아래서 바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Aethopopoeia는 실제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말과 성격이었습니다.

프로소포포에이아, 당신은 무엇인가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의 미덕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페르소나에 두는 의인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페르소나는 누구일까요? 직접적으로 바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이며 때때로 사람들은 이것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울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 대한 설명에 맞는 몇 가지 환상, 가능한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담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속았고 그것은 이브에게는 환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이 용어가 꽤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코 이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율법 없이는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5:13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담은 계명을 갖고 있었지만 기술적인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바울이 채택한 인물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더글러스 무(Douglas Moo)는 이에 대해 주장하며, 나는 그가 이에 대해 더 나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단체적으로 말하는데, 나처럼 시편의 특정 부분과 애가에서, 때로는 사해 두루마리나 일부 공동체 찬송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처럼 말하거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나로서. 따라서 어쨌든 이것은 법에 따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재 법 아래 있습니까? 7장과 5절에서 그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확실히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삶과는 다른 것을 묘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7장 14절을 6장 18절과 20절, 22절, 8장 9절과 대조합니다. 14절의 율법은 그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만들어졌고,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해방되었을 때 대개 값을 치르고 구속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6:18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고전 6:22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8장 9절 너희는 육신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권세에 있느니라.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이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장 8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니라

문맥과 결정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조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율법과 죄와 사망, 그러나 그 문맥상 우리는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육신적이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신자들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율법의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느니라(7:15-23). 그런데 8:4에서는 의롭게 사는 능력을 대조하십니다. 이는 8:3의 외부 법칙에 의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말하지만 그에 따라 살지 않는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다스립니다(7:17-20). 8 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7:18). 죄의 법은 신자들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몸을 지배합니다(8:2). 죄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7:23. 그렇다면 신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다른 곳에도 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죽음의 몸, 곧 죽음으로 정해진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7:24.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달리 사망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육신과 마음으로 죄의 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글쎄요, 8장과 6장에서 신자들은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신자로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정신적 관점과 반대되는 영에 속한 정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마음, 부패한 마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열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열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로마서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적으로 지식을 갖춘 마음, 심지어 율법을 아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의 힘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한, 음, 내 열정에 따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고, 내가 법의 올바른 정보를 받았음을

알았으니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열정은 일종의 줄다리기입니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지만 결국 나는 여전히 열정의 노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도덕적 요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정보 자체가 의로움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념과 이성의 대조에 대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는 이성으로 정욕을 극복하는 이방인 철학자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스토아학파는 열정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종의 중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양쪽의 초과 사이에 평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열정을 터득할 수 없다면 비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그리스 극작가, 메데이아와 페드라에 관한 드라마 등으로부터 언어를 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성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대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열정은 여성적이며 정신과 이성만 남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후를 칭찬하고 싶을 때 그녀의 추리력이 거의 남성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칭찬의 의미로 그런 말을 했지만 분명히 그것은 여성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바울이 이러한 용어로 나에 대해 말하는 곳에서 바울은 분명히 여성성과 남성성의 문제, 즉 열정이 더 여성적이거나 그와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이슨의 아내 메데이아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이슨과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죽임으로써 그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정에 압도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글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엄격한 율법 준수자를 묘사하는 것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통치하는 이방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옳은 일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육체입니다. 유대 철학자 여러분, 필로(Philo)에 이런 내용이 있고, 마카베오서 4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식인들은 이성으로 정념을 극복하자고 말했지만, 철학자들처럼 일반적인 방식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이유가 토라, 율법에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면 그러한 욕심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사상가들은 예찌라(Yetzirah)에 관해 말했는데, 사해 두루마리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사악한 충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충동을 극복하는 방법은 유대교의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토라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토라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랍비들이 결국 강조했듯이 예치라(Yetzirah), 즉 악한 충동을 극복할 좋은 충동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Paul은 좋다고 말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제한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의를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열정을 통제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의 열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러 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열정에 대해 말할 때 때로는 모든 종류의 신체 감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Stoics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 등 분노를 의미하지만 감정 소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스토아학파는 때때로 그것이 항상 그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스토아 철학자의 목격담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에 있었고 두려움으로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다른 지식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글쎄, 나는 아직 감정을 통제하거나 이런 종류의 감정을 파괴하는 수준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eneca는 이것을 일종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전 감정이 있으며, 그것은 실제로 통제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처음에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뇌가 작동하자마자, 인지가 작동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때가 바로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신경심리학에 대한 현대 연구에 따르면 뇌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기 전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인지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음이 들리고 뛰어오르는 것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두려움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7월 4일이죠. 그래도 매번 뛰어내리긴 하지만요.

전쟁 중에 난민이 된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펄쩍 뛰어오른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동화된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먼저 뇌의 해당 부분으로 가서 처리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아드레날린의 수준을 낮추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포 반응이 없었다면 사자가 우리에게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인류는 아마 오래 전에 멸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충동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일단 멈추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스토아학파는 말했습니다. 글썄, 풀은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인 열정에 대해 말할 때 그는 7장과 7절에서 탐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토라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은즉 율법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어떤 종류의 욕망을 의미합니까?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얻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토라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와 네 이웃의 재산 등을 탐내지 말라.

다른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을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살인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실제로 십계명의 그리스어 번역인 십계명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아내를 취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탐심, 탐심, 욕망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고, 당신의 이웃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 교사들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을 통제합니까? 나는 아직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도덕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실제로 바울은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가서 로마서 1장에서 일반적으로 묘사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그것이 죄를 통제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 마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 훈련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7:22, 23)에 동의하지만 죄를 조장하는 율법의 포로가 된다고 2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마치 내가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나요? 아, 보세요, 당신은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바울은 또한 전쟁 포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전쟁 포로는 일반적으로 노예였지만, 바울은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문제는 우리에게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정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에게는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바울이 표현한 과장된 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은사,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신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고, 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신분으로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의는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며, 우리는 감히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6장 11절). 그래서 25a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7:24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음, 7:25의 시작 부분이 이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8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7장 25절 끝부분에서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얽매어 있다고 요약합니다. 그는 7:16, 7:22, 7:23에서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7:25 끝부분에서 요약한 것처럼, 마음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대 영의 생각이라는 주제를 소개할 것입니다. 8장. 우리는 영의 삶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8장 25절).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항상 이상적이었습니다. 시편 37편 31절, 40절 8절, 이사야 51장 7절에 나오는 생각은 항상 우리 마음에 율법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새 언약과 함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 36장 27절에 영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법을 지키게 하겠다.

우리는 구약에서 가끔 영에 관해 읽습니다. 그러나 요엘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당신의 아들과 딸은 예언 등을 할 것입니다. 이 영의 은사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더욱 공개적인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것을 이행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 말은 죄에 관해 번역될 수 있습니다. 페리 하마르티아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관한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죄를 표현하는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제물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에서 죄에 관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5절부터 7절까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나는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문맥에서 그 생각을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의 세계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에 의해 삶의 틀이 잡힌 사람들은 영의 영향을 받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정신의 틀에는 죽음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 죽을 몸은 어차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다른 원리가 작용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속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방금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자신이 말한 것을 회상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 이미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7:24에서 그는 누가 나를 이 죽음으로 운명 지어진 몸에서 구출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서는 너희 몸은 죽을지라도 영은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육신뿐이고 우리 자신뿐이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실제로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필로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열정의 노예가 되고 육체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일반적인 철학적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그는 또한 로마서 16장 18절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6장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적 부도덕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거기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그가 강림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마음을 대조하여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제가 오늘을 위해 사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위해 산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주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법이 정죄에 가까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8장 3절과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를 담당하셨으니,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실제로 바울의 동시대 유대인들이 그와 어떤 식으로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내면성인 카바나 (kavanah)를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종이에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영이 널리 이용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 특히 엘리트들, 율법교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 시대에 영이 활동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반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선지자였던 예수를 따랐으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선지자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영의 부으심은 특별히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는 일을 포함하여 그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에 대해 말하는 사해 두루마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동시대 사람들이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단지 누구도 요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의롭게 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의롭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의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성령의 생각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1-8:4의 제8회입니다.